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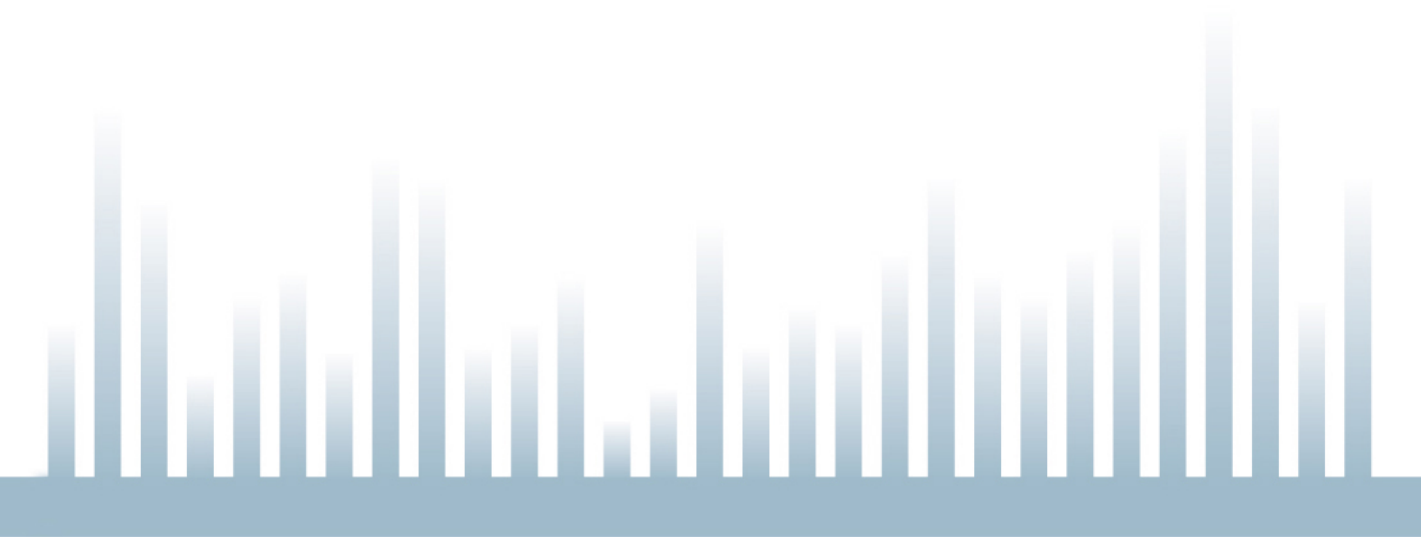


생생리포트

■ 서울, 주점보단 커피전문점

박희석 센터장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장윤선 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서울, 주점보단 커피전문점

박희석 센터장 hspark@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I. 서울거리를 가득 채운 ‘커피전문점’

II. 자치구별 ‘커피전문점’은 증가, ‘일반유흥 주점’은 감소

III. 글을 마치며

* 본 내용은 서울연구원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서울시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1. 서울거리를 가득 채운 ‘커피전문점¹⁾’

요즘 서울의 거리를 살펴보면 한 골목 당 커피전문점이 적어도 한 가게 있을 정도로 많아졌다. 커피전문점은 식사 후에 후식을 먹는 장소를 뛰어넘어 이제는 공부를 하거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늦은 밤까지나 24시간 운영하는 곳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늦은 시간까지도 활기를 띄고 있는 커피숍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서울의 2008년 2011년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눈에 관찰되듯이 커피전문점의 수가 증가했으며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 서울의 자치구 중 어떤 곳에 주로 증가하였으며 다른 업계에도 영향을 끼쳤는지 관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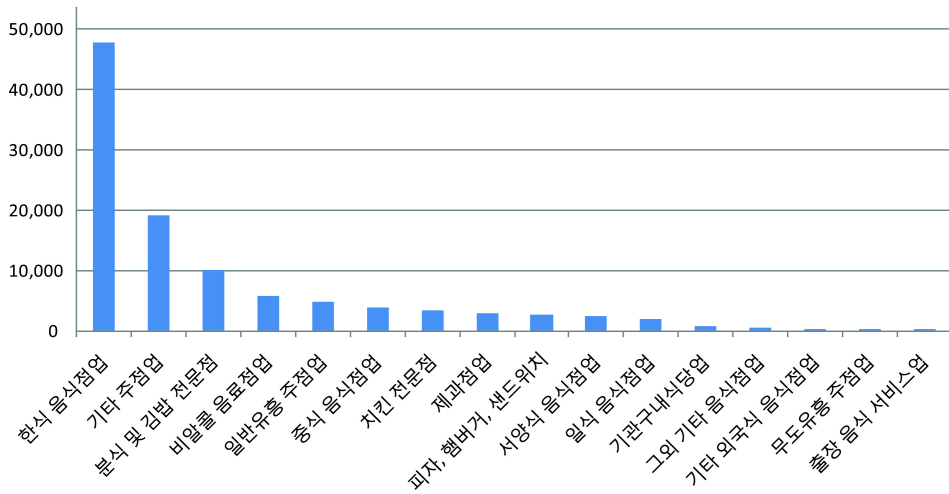
‘커피전문점’은 연간 증가율은 1순위, 사업체 수는 4순위

2011년 서울의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 자료를 분석하면 [그림1]과 같다. 1순위는 한식 음식점업 47,873개로 전체의 42.6%, 2순위는 기타 주점업 19,113개로 전체의 17.0%, 3순위는 분식 및 김밥 전문점 9,590개로 전체의 8.5%, 4순위 비알콜 음료점 9,399개로 전체의 8.4%, 5순위 일반유통 주점업 4487개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순이다. 1순위 한식 음식점업과 3순위 분식 및 김밥 전문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음료업과 관련된 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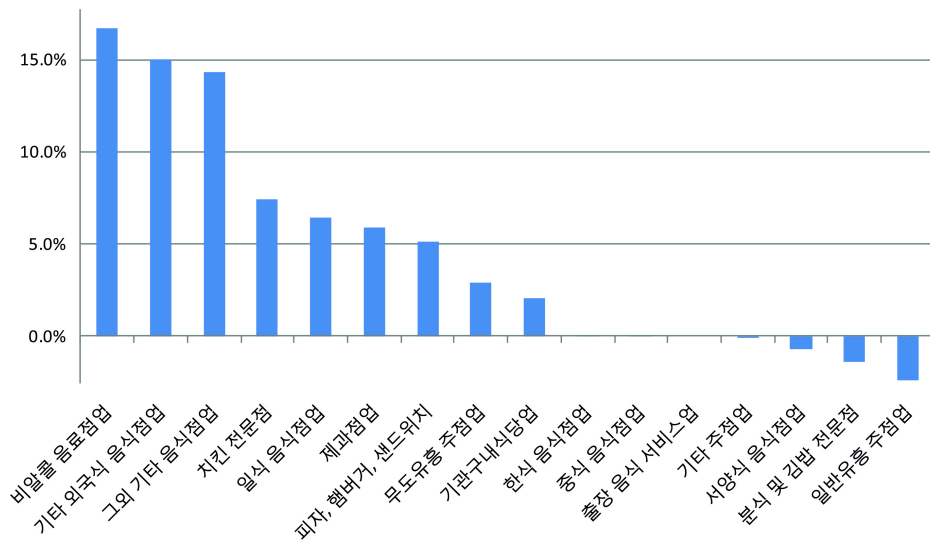
2008년에서 2011년까지 3년간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의 연간 증감률을 분석하면 [그림2]와 같다. 1순위 비알콜 음료점업으로 16.7% 증가, 2순위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으로 15.0% 증가, 3순위 그 외 기타 음식점업으로 14.3% 증가, 4순위 치킨 전문점으로 7.5% 증가, 5순위 일식 음식점으로 6.4% 증가한 순이다. 비알콜 음료점은 통계적 수치로도 증가되는 것이 관찰되면서 커피전문점이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기타 외국 음식점업의 증가도 다양한 나라 음식에 관심이 많아진 소비자들의 취향을 예상할 수 있다.

커피전문점과 찻집이 연간 16.7%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사업체 수도 음식점 및 주점업 중 8.4%를 차지하고 있는 분석 결과는 소비자들이 커피전문점을 많이 찾으면서 그 수가 증가 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1) 커피전문점의 통계청 세세분류는 ‘비알콜 음료점’



[그림 1] 2011년 음식점 및 주점업 산업별 사업체 수



[그림 2] 2008년 ~ 2011년 음식점 및 주점업 산업별 연간 증감률

사업체 중 연간 감소율이 가장 큰 산업은 '일반유통 주점업'

3년간 모든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림 2]를 보면 4개의 사업체가 연간 감소했다.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산업은 일반유통 주점업으로 2.4% 감소, 그 다음으로 분식 및 김밥 전문점으로 1.4% 감소, 서양식 음식점업으로 0.7% 감소, 기타 주점업으로 0.1%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간 16.7%의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비알콜 음료점과는 상반된 현상이다.

연간 늘어나고 있는 커피전문점과 그 반대로 연간 줄어들고 있는 일반유통 주점은 주로 어떤 자치구에 주로 밀집되어 있으며, 3년간 증감률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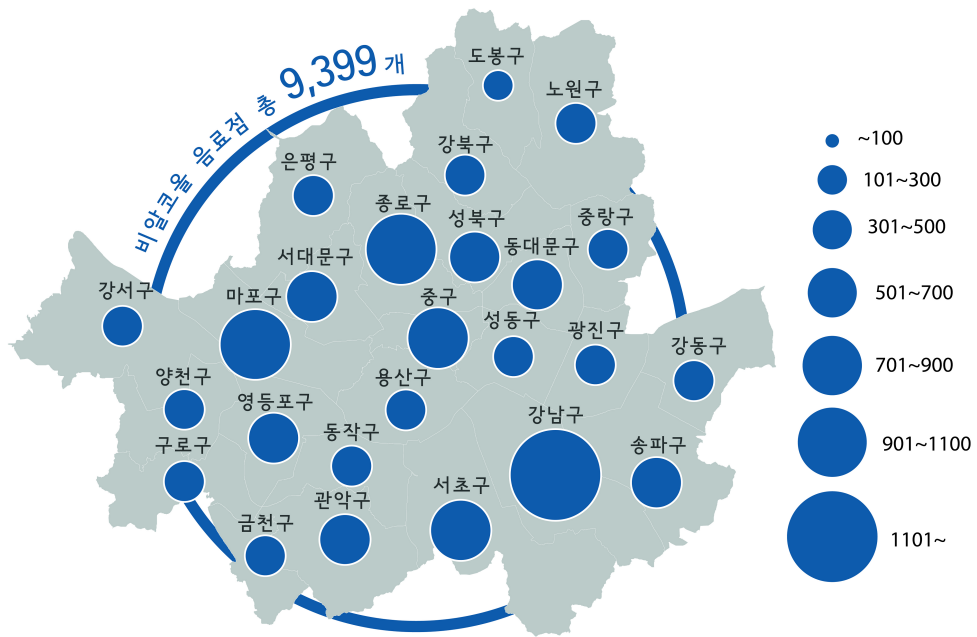
II. 자치구별 '커피전문점'은 증가, '일반유통 주점업' 은 감소

‘비알콜 음료점’,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이며 25개 자치구 모두 지난 3년간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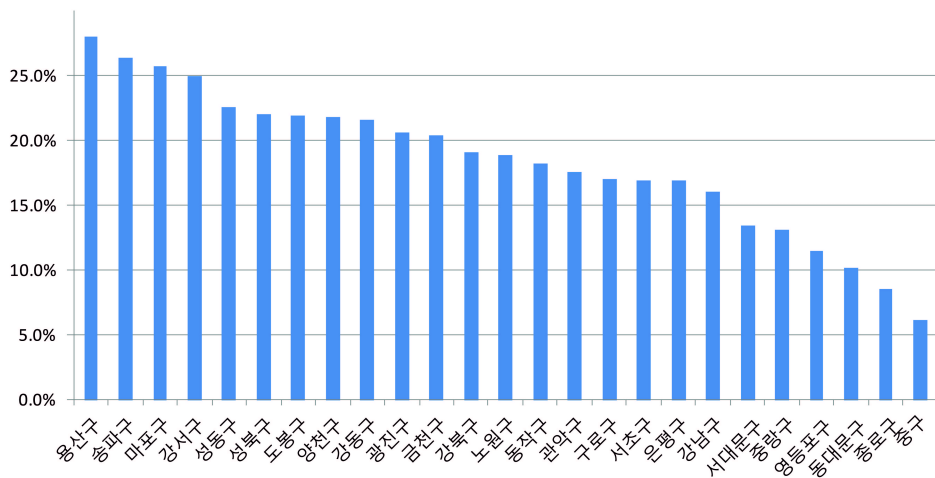
서울 전체 9,399개의 커피전문점과 찻집들은 어느 자치구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있을까? [그림3]을 살펴보면 1순위는 강남구 1,128개로 12.0%, 2순위 종로구 819개로 8.7%, 3순위 마포구 759개로 8.1%, 4순위 서초구 630개로 6.7%, 5순위 중구 622개로 6.6%순이다. 비알콜 음료점 사업체가 많은 자치구는 회사들이 밀집되어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로 나타났다. 또한 젊은 청년층이 찾는 대학로, 강남거리, 홍대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명동거리등이 포함된 지역이기도 하다.

2008년에서 2011년까지 3년간 비알콜 음료점의 연간 증감률을 분석하면 25개 자치구 모두 증가했다. [그림4]를 보면 연간 증가율 1순위는 용산구로 28.1%, 2순위는 송파구로 26.4%, 3순위는 마포구로 25.7%, 4순위는 강서구로 25.0%, 5순위는 성동구로 22.5% 순이다.

마포구는 사업체 수가 3순위 759개로 많으면서 연간 25.7%의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마포구는 커피전문점이 많이 자리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커피산업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가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3] 2011 자치구별 비알코올 음료점 사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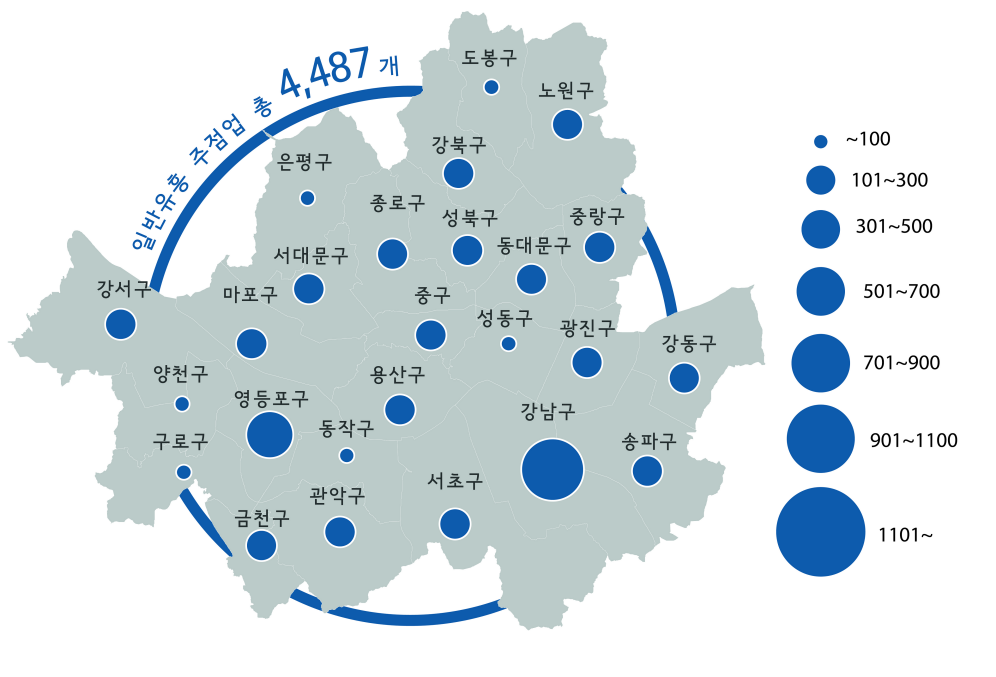
[그림 4] 2008년 ~ 2011년 자치구별 비알코올 음료점 연간 증감률

‘일반유흥 주점업’ , 근소하게 증가한 8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지난 3년간 감소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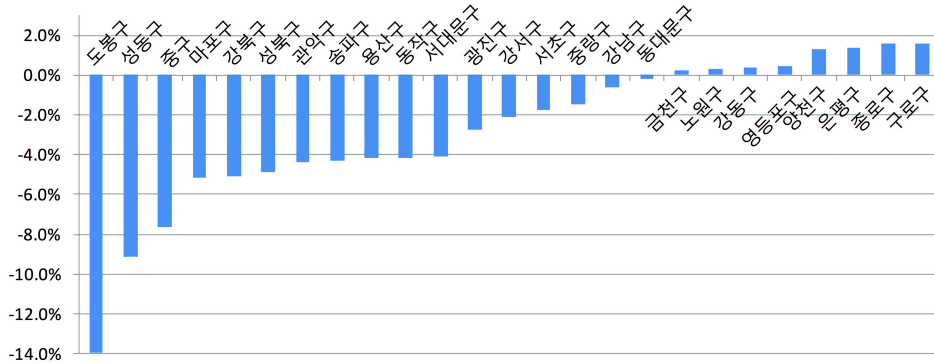
서울 전체 4,487개의 일반유흥 주점들의 분포를 살펴봤다. [그림 5]에서 나타나듯이 비알콜 음료점과 동일하게 1순위는 강남구 635개로 전체 서울의 일반유흥 주점 중 14.2%를 차지한다. 2순위는 영등포구 320개로 7.1%, 3순위는 마포구 261개로 5.8%, 4순위는 서초구 257개로 5.7%, 5순위는 관악구 246개로 5.5% 순이다.

서울의 17개 자치구 일반유흥 주점들은 2008년부터 2011년 3년간 감소하였으며 나머지는 아주 근소하게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그림6]을 보면 가장 많이 감소한 자치구 1순위는 도봉구로 13.9% 감소, 2순위는 성동구로 9.1% 감소, 3순위는 중구로 7.6% 감소, 4순위는 마포구로 5.2% 감소, 5순위는 강북구로 5.1% 감소한 순이다.

일반유흥 주점업도 비알콜 음료점과 같이 마포구가 제일 큰 변화를 보였다. 3순위를 차지하는 261개의 많은 사업체 수에도 불구하고 연간 5.2%씩 감소했다. 서울의 자치구 중 마포구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일반유흥 주점업은 줄어드는 반면에 비알콜 음료점인 커피전문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5] 자치구별 일반유흥 주점 사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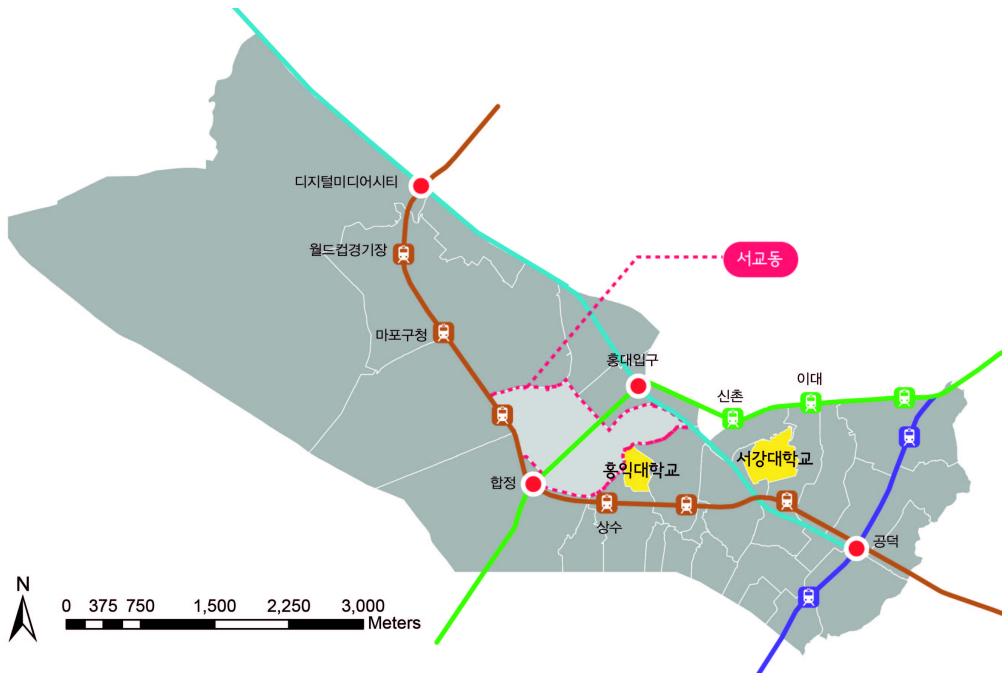
[그림 6] 2008년 ~ 2011년 자치구별 일반유흥 주점 연간 증감률

비알콜 음료업과 일반유흥 주점업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마포구’

위의 통계 분석을 통해서 마포구의 음료업계가 자치구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비알콜 음료업은 자치구 중 사업체 수는 3순위이면서 연간 25.7%의 빠른 증가율을 보이면서 일반유흥 주점업은 똑같이 3순위로 사업체 수가 많지만 연간 5.2%의 감소율을 보였다.

마포구의 비알콜 음료점을 행정구역별로 관찰했을 때 전체 마포구의 49.1%인 372개의 사업체가 서교동에 위치해 있다. 서교동은 홍대 문화거리가 위치한 행정구역이며 개성이 넘치는 카페들을 찾을 수 있다. 북카페, 음악카페, 갤러리카페 등 다양한 종류의 커피전문점들이 각자의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명소로 꼽는다. 2순위는 서강동으로 7.9%인 60개, 3순위는 상암동으로 6.7%인 51개로 압도적으로 대부분의 커피전문점이 서교동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유흥 주점 역시 행정구역별로 관찰했을 때 전체 마포구의 45.9%인 122개의 사업체가 서교동에 위치해 있다. 2순위는 용강동으로 12.8%인 34개, 3순위는 아현동으로 10.9%인 29개로 압도적으로 서교동에 가장 많은 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림 7] 마포구와 서교동의 위치

가장 많은 비알콜 음료점과 일반유흥 주점이 위치한 서교동은 홍대 문화거리에 의해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가졌다. 이 특징은 홍익대학교, 서강대학교, 그리고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가 근접해있어 더 도드라진다. 마포구의 비알콜 음료점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일반유흥 주점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았을 때 요즘 젊은 청년들은 술보다는 커피나 차를 선호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III. 글을 마치며

서울의 커피전문점들은 눈에 띄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적 수치를 보았을 때 서울의 전체 커피전문점들은 연간 16.7%씩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자치구들의 사업체 수 또한 3년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상반되는 현상은 일반유흥 주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전체는 연간 2.4%씩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치구들도 감소하거나 아주 미세하게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자치구인 마포구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예상 할 수 있다. 마포구의 행정구역중 서교동이 가장 많은 커피전문점과 일반유흥 주점들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서교동은 홍대 문화거리가 위치해있어 젊은 청년층이 주로 밀집되어 있는 장소이다. 이처럼 젊은 청년층은 점점 술을 마시는 것보다 트렌디한 커피전문점을 찾는 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자료: 2008년, 2011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자료(통계청)